

# “큰 별이 졌다...세상이 적막해졌다”

우리사회의 큰 버팀목이었던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 소식이 종교와 국경을 넘어 “이 땅의 큰 별이 졌다”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는 하루종일 정치인과 종교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조문인 끊이지 않았다.

## 각계 끝없는 애도 물결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김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해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침통한 표정으로 명동성당에 도착해 정진석 추기경의 안내로 김 추기경이 안치된 대성전 안으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유리관 앞에 고개를 숙여 고인이 잠든 모습을 지켜 보았으며 약 30분간 고인을 추모하고 시민들을 만난 후 명동성당을 떠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조전을 보내 “김 추기경님께서 한국 천주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종교계의 어른으로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고 뿐 아니라, 시대의 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정치권도 소의 계층을 감싸 안았던 김 추기경의 행적을 기리며 한 목소리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李대통령 직접 조문

김영웅 국회의장은 “민족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의 등불을 밝히신 고인에게서 부디 하늘의 품 안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김 추기경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국민과 동행한 정신적 지도자였고, 이념적 중간이 아닌 정신적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김 추기경은 우리 현대사의 큰 별이었고, 어두웠던 시절에는 빛이었고, 그분의 삶은 사랑이었다”고 추모했다.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큰 어른의 선종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은 “종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김 추기경의 선종을 불교계 사부대중과 함께 애도하고 이웃의 고통을 대신해 살아오신 평생의 지표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천주교인들의 슬픔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는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인 김 추기경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하며 어려운 사

람을 위해 살았다”면서 “무엇보다 개신교와 함께 교회일치운동을 함께해 온 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결혼식 주례를 설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김지하 시인은 “선종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편찮을 때 간다간다 하면서도 수녀님들이 ‘때가 안 좋다’고 하셔서 끝내 못 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적’으로 필화사건을 겪고 2년 만인 1972년 가톨릭계 잡지 ‘창조’에 당시 ‘비어’를 실어 다시 체포돼 마산의 국립결핵요양원에 연금당했는데, 이때 추기경이 찾아와 마산교구청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첫 인연을 맺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접하고 “세상이 한층 더 적막해진 느낌”이라며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박씨는 “우리가 숨던 날개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종교계도 김 추기경의 선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기원하는 애도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 광주·전남 성당 추모미사

사제와 신자들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 민들도 “한국 가톨릭의 큰 별이자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잃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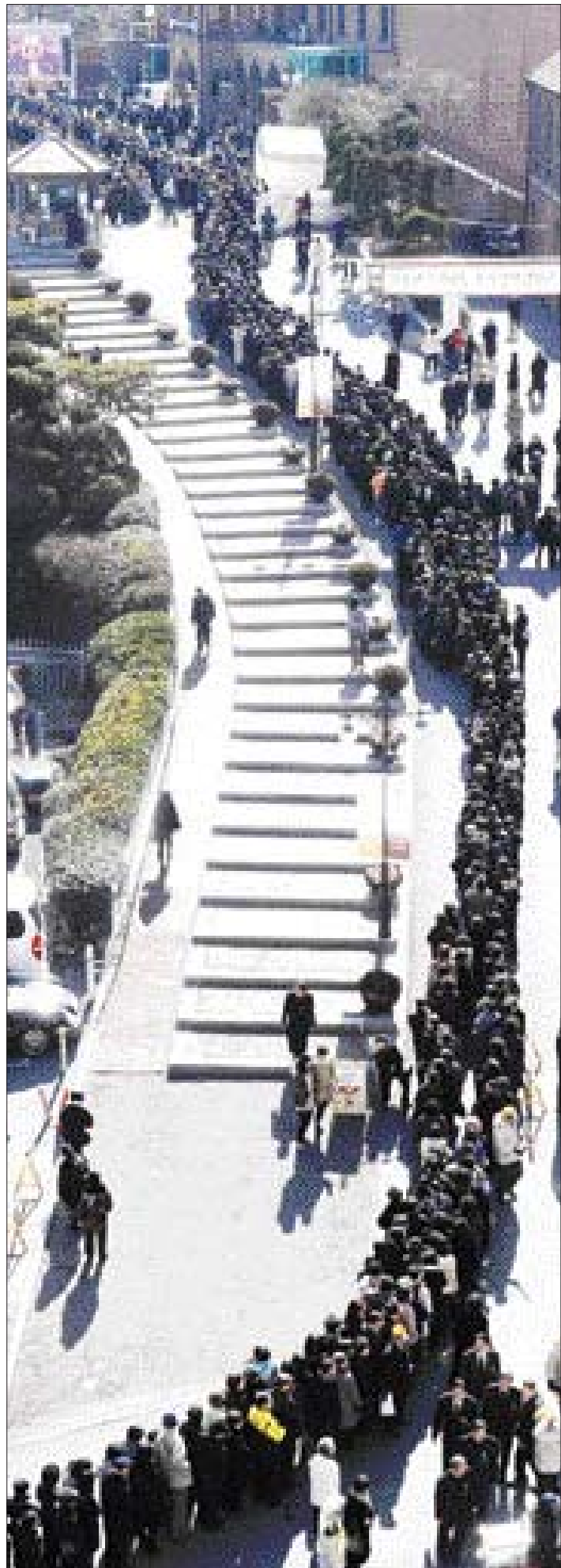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공식적으로는 교구차원 분향소나 추모미사를 봉헌하지 않았지만 각 본당에서 주일신부 제랑에 따라 추모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광주 전남의 성당은 추모현수막을 내걸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신자와 일반인이 조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대교구는 장례식 다음날인 21일 낮 12시 주교좌임동소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사제단대표와 평신도대표들이 친전한 가운데 추모미사를 가질 예정이다. 최창무 대주교와 김희중 보좌주교 등은 추도식 참석차 상경했다.

한편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145만 광주시민과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홍보를 위해 중국 하얼빈에 머물고 있는 박시장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던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였다”며 아쉬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오전 조문을 위해 서울 명동성당을 찾은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다. /연합뉴스

# “옥살이때 영치금 2번이나 넣어줘 그분의 과분한 사랑 무한한 영광”

## ■ 빈소 찾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일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야당 지도자 시절 김 추기경과의 각별한 인연을 회상하며 슬픔에 젖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김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하고 민족 지도자를 잃은 것에 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성당 본관 대성전 옆 출입문에 도착한 김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김 전 대통령은 “(김 추기경은) 우리가 보배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민족과 국민의 어른을 보냄에 있어 인간적인 애용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는 위대한 신앙가이자 선구자였다. 하늘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성직자로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독재 치하에서 고생을 국민을 위해 광야의 소리 같은 말씀을 많이 하였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들의 편이 되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야 지도자 시절 김 추기경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전했다. 자신이 투옥됐을 때 김 추기경이 진주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 직접 찾아와 면회했고, 이희호 여사를 통해 100만원씩 2차례나 차입금(差入金)을 넣어준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르침과 의견을 받았다. 따뜻한 그분의 사랑을 직접 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편

으로 슬프지만, 영생을 누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지팡이를 짚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김 추기경의 시신이 안치된 대성전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관 앞에 서서 성호(聖號)를 긋고 눈을 감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바친 김 전 대통령은 관을 한 바퀴 돌며 김 추기경의 잠든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1990년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해 정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악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진석 추기경 추도사

# “영원한 생명의 나라서 영면하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오후 6시12분 우리 곁을 떠나 하늘님 품안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해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늘님께서 김수환 추기경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항상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빛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서 하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김 추기경님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노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와 인간미를 잃지 않으셨



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향해 외치셨던 메시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였습니다. 평소 김수환 추기경께서 바라던 대로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넘치도록 마음을 모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성자인 김수환 추기경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늘님, 친히 주님의 일꾼 김수환 추기경을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우신 아버지여,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2009년 2월 1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코조이 여행사**  
234-3222

북경 투어 3박4일 (02) **369,000**

북경 투어 4박5일 (02) **429,000**

**일본 오사카여행 전문**

일본은취어 여행 소절특가

카멜리아 3박 4일 - 동부특가

구형신선반 1박	299,000
일본신선반 1박	339,000
특급 1박 1일	52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항공)**

**175,000**

3/1 단회